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이야기 2019년(통권. 5)

늘봄 늘봄

2019년(통권. 5)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Seoul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Cerebral Palsied

늘봄

통권. 5

03 여는글 - 따뜻한 나눔, 소중한 인연 상계동문약국 '윤기욱 약사님'



Story

04 복지관 이모저모

07 새로 오신 류영수 관장을 소개합니다.

08 나이 듦(Aging)과 성장(Growth, Development)에 대하여

10 가족휴식지원사업 '2019 힐링 캠프' & 장애인돌봄지원사업 '2019 푸른 캠프'



Right to speak

12 김태완 사회복지사의 희망은 사례관리를 타고

Company

14 종고나라 우수 장애인 사원. '홍현승'님을 만나다.



Column

16 장애인 구강관리 꿀 팁(Tip)

17 '장애인차별금지법' 들어보셨나요?

Partnership

18 2019년 상반기 복지관과 동행했던 자원봉사자님

19 2019년 상반기 복지관과 동행했던 후원자님

2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셜벤처 블루레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소식지 “늘봄” 통권 5호

발행일 2019.08.31. 발행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발행인 류영수 편집인 박희원

주소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전화 02-932-4411~2 팩스 02-932-4413

이메일 srccp@hanmail.net 홈페이지 www.srccp.or.kr (QR코드▶)

디자인 & 인쇄 이문기업



“늘봄”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 뇌성마비인과 지역사회주민을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발간물입니다.

표지 설명 : 향수-이서영 작(제35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시상식에서 제27회 전국장애학생 미술공모전 뇌병변·지체장애분과 중등부 은상을 수상한 작품임.)

Story

따뜻한 나눔, 소중한 인연 상계동문약국 '윤기욱 약사님'



안녕하세요? 상계동문약국 약사 윤기욱입니다. 저는 약사로 일하면서 뇌성마비인을 자주 접하게 되었고 뇌성마비인들의 힘든 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큰 공감을 하여 손님의 입장에 맞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사회복지사님이 방문하여 복지관 홍보와 모금함 설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동안 뇌성마비인과 그 보호자들의 고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고, 모금함 설치라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복지관에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 3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모금함 설치를 하였을 때는 모금이 잘 되지 않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좀 더 모금함 후원에 도움을 드리고자, 모금함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 올해 쓰레기 규제강화로 받게 된 봉투값을 수입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손님들에게 봉투값을 모금함 후원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손님에게 봉투값을 요구하였을 때 화를 내셨지만, 봉투값을 모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 기부할 것이라고 설명해 드리니 묵묵히 천 원 2장을 꺼내 넣어 주셨던 일화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도울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분의 돈 혹은 각자의 작은 목표를 세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천 원씩 저금을 하거나 정기후원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자신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늘봄
동권.5

1월 1일~
3월 30일

상반기 복지관 **이모저모**



♡ Q △

신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1월 7일~25일, 3주간 뇌성마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특별활동 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스케이트, 영어노래, 미술교실 등 1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또래 간의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Q △

설맞이 나눔 행사

1월 31일, 저소득 뇌성마비인 154가정을 대상으로 '설맞이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한국투자공사가 명절선물세트를 후원하고 디딤돌 봉사단, 강북구 나눔봉사단이 함께 명절음식을 만들어 더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 Q △

2019 대보름 축제 '어울림 한마당'

2월 19일, 대보름 축제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윷놀이대회와 먹거리마당, 투호 등을 함께하며 풍성한 정월 대보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엔품물연구소의 품물놀이 공연을 관람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Q △

성인 뇌성마비 문화예술체험 '딸기 따러 떠나요~♫'

2월 28일, 성인 뇌성마비인 및 보호자 등 35명은 남양주에 위치한 샘물딸기 체험농장을 다녀왔습니다. 딸기 따기, 딸기잼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인근의 두물머리 일대를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Q △

보송보송 이불 빨래

3월 7일, 따뜻한 봄날을 맞아 집에서 이불 빨래를 하기 힘든 뇌성마비인을 대상으로 이불빨래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이동식 이불 빨래방사업 덕분에 보송보송한 이불 속에서 잠자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Q △

행복지킴이 발대식

3월 30일, 가정결연 자원봉사자 '행복지킴이'의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행복지킴이는 지역사회주민들과 뇌성마비인 가정을 결연하여 육아, 학습, 밀반찬 등을 제공하여 뇌성마비인들의 최소한의 행복을 지켜주자는 의미로 결성되었습니다.





늘봄
동선 5

4월 1일~
6월 30일

상반기 복지관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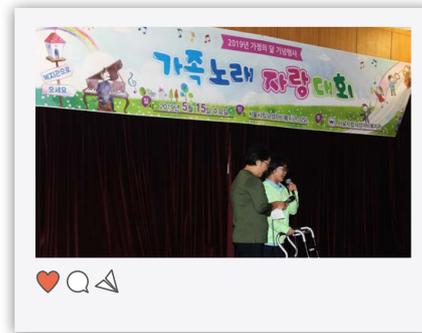
모두가 다 함께 기념하는 장애인의 날

4월 16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뇌성마비인과 가족, 자원봉사자가 모두 모여 다양한 게임과 공연을 함께 즐겼습니다. 더불어 우수이용자, 우수자원봉사자, 우수후원자를 표창해 복지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전국뇌성마비인축구대회 참가

4월 19일, 서울 도봉구 다락원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본죽컵 제26회 전국뇌성마비인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10개 팀 107명이 참가하는 큰 행사에 우리 복지관은 챌린지팀에서 3위를 하며 열정을 다해, 경기에 참가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가족노래자랑대회

5월 15일, 가정의 달을 맞아 뇌성마비인과 가족, 지역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가족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리푸리'의 민속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끼리 노래를 부르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 찾아, 여유 찾아

5월 23일~24일, 재가뇌성마비인들이 태안의 빛 축제와 알리움 축제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어보셨나요?'

6월 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안내하고 차이·차별·편견을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인 1취미 글시네 '시와 연애하는 법'

6월 12일, '시와 연애하는 법'을 주제로 자신의 기분, 경험 등을 시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인 1취미 지원사업은 뇌성마비인이 사회성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오뚜기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이모저모'



정월대보름 축제

2월 18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서울북부소 규모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와 함께하는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함께 친목을 도모하며 우리나라 고유 절기를 기념하였습니다.



건강검진

4월 11일, 노원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이용자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흉부 X-선, 혈액검사를 통해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힐링캠프 & 여름캠프

6월 13~14일, 강원도 강릉시 일대로 부모힐링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부모힐링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이용고객들은 장애인콜택시 사랑봉사단과 함께 충청남도 보령시로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상반기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이모저모'



롯데복지재단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간담회

4월 23일, 롯데복지재단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롯데복지재단 실무자들과 함께 지원사업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유니클로 의복리폼 지원사업

5월 1일, 장애로 인해 기성의복의 착 탈의가 어려운 분들에게 유니클로 의복리폼 지원사업을 통하여 계절별 맞춤형의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사업설명회

5월 29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센터 사업설명회,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오뚜기하우스1, 2호 '이모저모'



가족회의

6월 10일, 입주인들과 함께 가족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앞으로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교육

6월 12일, 입주인들과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고 OX퀴즈를 하며 피해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가족여행

6월 28일, 남이섬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이섬종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남이섬 일대를 구경하며 모터보트, 유니세프관광열차 등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Story

새로 오신 류영수 관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관장 류영수입니다.

우리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의 가정 위에 평화와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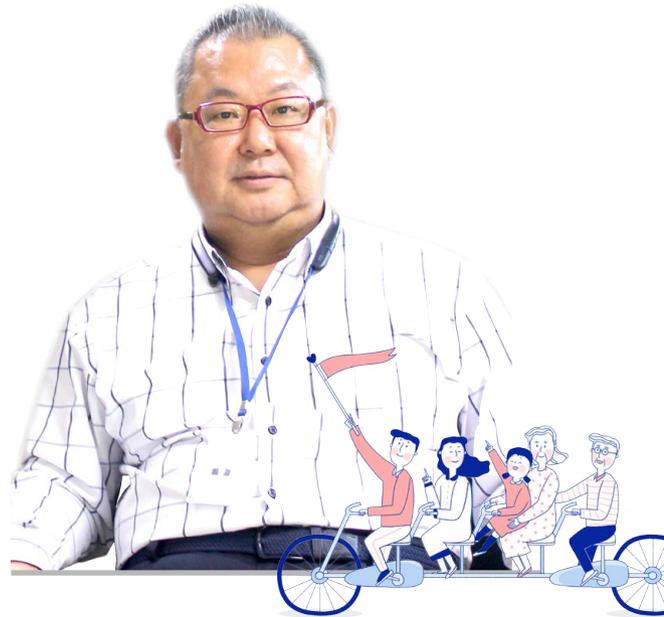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뇌성마비인의 욕구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뇌성마비인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인의 전 생애에 걸쳐 행복한 삶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시간이 벌써 3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복지관이 '뇌성마비전문복지관'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결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복지관을 찾아주신 이용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동행해 준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서울특별시청, 노원구청, 유관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뇌성마비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초심으로 첫째, 뇌성마비인의 자립·자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강화 및 개발, 둘째,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강화 및 개발, 셋째,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행복사랑드림을 위한 서포터즈로서ダイナミック한 전투적인 열정과 사랑으로 지역사회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며, 뇌성마비인과 그 가족에게 행복사랑드림을 전하는 지역사회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복지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관장 **류영수** 드림



Story

나이 듦(Aging)과 성장(Growth, Development)에 대하여



김명화 팀장 / 언어치료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오래전 학부 시절 교수님께서 졸업하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적용해 보는 과정을 경험했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게 되는 직업으로서의 임상을 걱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열매를 주지만, 그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요.

임상 현장, 지금 근무하고 있는 뇌성마비복지관에서의 치료해 온 날들이 어느덧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성장의 높낮이와 깊이는 오로지 자신들만의 몫인 것을 생각하며, 치료사로서의 자세와 함께 자라고 성장해 온 뇌성마비인들을 통해서 배워 온 것들을 나

누고자 합니다.

치료든 일이든 즐거워서 하는 일은 누군가에 의해 시켜서 이루어지는 일보다 우리 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놀이처럼 즐겁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전제가 배경이 됩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사례는 바로 그런 사례로 근무하던 초기에 만났던 아동입니다. 무언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할 때 무정당한 움직임이 나타나 말하거나 움직이는 데 방해가 받는 유형의 아동은 치료사와 보호자가 설정한 목표를 어려워하였습니다. 치료 시간보다 일상생활에서 좀 더 편안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정해진 방법보다 자유로운 놀이 상황으로 구조화하고 목표한 문장들을 말하도록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



은 현재 성인이 되었으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몇 년 전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실에서 배운 상황들을 일상에서 충분한 연습을 진행하였을 때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아동은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잘 먹을 수 없었으며 호흡도 짧았습니다. 표현 언어의 기초가 되는 호흡과 말하는 기관으로서의 구강발달을 위해 구강 기능 운동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같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가 번거로운 한랭 자극 또한 충실이 진행하였으며, 아동은 빠르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구강발달과 함께 표현 언어의 발달도 함께 보여 주어 아동의 발달을 이끄는 것은 보호자이며, 치료사는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동은 현재 청소년으로 일반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세 번째는 치료실 안에서와 밖에서 하는 행동과 말이 달라 거짓말쟁이 치료사가 되게 하는 사례입니다. 아동은 정해진 규칙이 있으면 잘 따르고 연습한 만큼 발달을 보여 주는 사례였으나, 밖에만 나오면 행동으로만 반응할 때가 많았고 특히 낮선 사람이나 낮선 공간에 가면 말을 못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강기관이 긴장되어 있어 충분하지 않은 호흡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발음의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의사소통의 질을 떨어뜨려 아동의 자신감을 더욱 잃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문장으로 말을 개시하도록 하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자 모든 상황에서 좀 더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도 근황을 주고받으며 커피도 같이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일자리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시간 동안 뇌성마비 치료를 해 오면서 좀 더 나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뿌리와 줄기가 튼튼한 나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월을 통해 만났던 아이들이 나이 들고 다시 만나는 순간 나이 늙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 들었다고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 깊이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그냥 나이 들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항상 질문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Story

가족휴식지원사업 '2019 힐링 캠프' & 장애인돌봄지원사업 '2019 푸른 캠프'



2019년 6월 26일(수)~28일(금), 가족휴식지원 사업 '힐링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힐링 캠프는 2012년 우리 복지관에서 최초 시작으로 2014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복지관을 모델화하여 서울시 44개 복지관으로 확대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힐링 캠프를 통해 뇌성마비인의 엄마들이 자녀들의 양육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힐링 캠프 참가자들은 야외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단체 활동을 통하여 엄마들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힐링 캠프는 전라북도 군산과 전라남도 목포·변산 일대로 다녀왔습니다. 캠프 첫 날, 설레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모여 군산으로 떠났습니다. 군산 철길마을에 도착하여 학창 시절에 입었던 교복도 입고, 달고나도 먹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녀 시절의 향수에 젖어볼 수 있었습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농민도 되어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투사도 되어보며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틀날이 되었습니다. 삼학도에 도착하여 푸른 자연 속에서 경치를 즐기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장소를 이동하여 목포종합수산물시장에서 생선을 구경하고 젓갈을 맛보았습니다. 또 요트에 탑승하여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넓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뻗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에 모여 캠프 참가자들은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채석광의 암석과 파도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캠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캠프를 함께 다녀오며, 캠프 참가자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조언을 해주며 지혜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Q 힐링 캠프에 참여한 소감이 어끌신가요?

잠시 자녀와 떨어져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요트를 타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사람들과 이야기 한 게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엄마들이 신나게 먹고 놀며 즐길 동안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힐링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힐링 캠프 참가자들의 자녀들은 인천 강화도로 푸른 캠프를 떠났습니다~!

푸른 캠프는 주 양육자의 힐링 캠프 기간 동안 자녀의 돌봄을 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들은 익숙한 가족을 떠나 자원봉사자와 1:1 매칭

되어 2박 3일 동안 함께하였습니다. 캠프기간 동안 서울식물원과 아라뱃길 아라리움 등을 관람하며 자연환경을 즐기고, 가상의 배를 운전하며 선장이 되어보는 신나는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또 다함께 물장난도 치고 물 폭탄도 맞으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물놀이를 하며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강화자연사박물관과 양떼목장에 방문하여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공룡과 동물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Q 푸른 캠프에 참여한 소감이 어끌신가요?

함께 물놀이를 하고 영화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해서 좋았어요. 내년에도 가고 싶어요!

캠프기간 동안 맛있는 식사와 많은 볼거리를 보며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들에게 현실의 고민과 걱정을 잊는 시간이, 자녀들에게 친구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며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Right to
speak

김태완 사회복지사의 찾아가는 서비스 희망은 사례관리를 타고



김태완 사회복지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



저는 상담사례지원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완 사회복지사입니다. 상담 사례 업무를 하며 사회복지에 있어 사례관리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가치관, 철학, 관점은 사례관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몇 십년을 살아오시면서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온 이용자분들, 그들의 부모님들까지, 20대 후반의 사회복지사인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제도, 가족관계, 경제, 법적인 이해나 상식이 무지하거나 경험의 폭이 작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를 만나면서 이용자와 약속을 만들고, 만남에서 긴장도 하고 헤어짐에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중

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용자의 욕구는 무엇인지 등 사회복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항상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들의 수급 현황, 지원현황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파악하여 제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러나 평소 인연을 전혀 맺지 않고, 복지관을 이용하다 말없이 소식이 끊긴 이용자분들, 개입을 강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는 것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사례지원팀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 최근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근황 상담을 실시하며 가정, 거주지 등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또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서 협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의 협업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놓인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이용자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주는 복지 사업을 실천하는 것을 보며, 사회복지사로서 이용자에게 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배움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한계로 느꼈던 공급자 중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올바른 실천 방향과 가치관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례지원팀 팀원으로서 팀별 직원들과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며 능동적인 직원이 되어 직원들과 화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모집 안내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는 뇌성마비인과 가족을 위해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① 대상 : 뇌성마비인과 그 가족
 - ② 기간 : 상시
 - ③ 장소 : 뇌성마비인의 거주지
 - ④ 내용 :
 - 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를 위한 복지 상담 제공
 - ② 찾아가는 심리안정지원서비스
 -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에게 심리 진단 및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③ 찾아가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보이는 대상에게 정신건강평가 및 정신건강상담 지원, 전문기관 연계
 - ⑤ 이용료 : 무료
 - ⑥ 문의 및 신청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
- ☎ 02-932-4412(통합사무실), srcpp@hanmail.net



Company

중고나라 우수 장애인 사원, ‘홍현승’님을 만나다.



“ 우리 뇌성마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나 정보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중고나라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며 10만 건 이상의 사기거래를 적발해, 2017년 우수 장애인 사원으로 선정된 **홍현승**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3월부터 중고나라 카페 운영팀 소속으로 재택근무하고 있는 보안관 홍현승입니다.

Q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취업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나요?

대학 졸업 후, 복지관의 직업지원팀에서 같이 취업박람회도 가고, 모니터링 교육도 받고, 지원고용사업도 해보면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첫 직장에서 현재 직장까지 일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사회의 벽이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믿고 이곳, 저곳 지원을 하였습니다. 첫 직장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고 일찍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 자신에게 자신을 못 넘었다는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첫 직장의 두려움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년 정도 아르바이트로 간

단한 일을 하면서 업무 능력을 키워, 지금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Q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중고나라 카페운영팀 소속 보안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은 뇌성마비, 지체장애인 5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중고나라 모니터링, 불량글, 사기글, 나눔글 신고 및 문의 처리 등을 합니다. 그 중 저의 담당은 정지·탈퇴된 회원들의 문의 처리와 불량글 처리 등을 주 업무로 합니다.

Q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수습직원으로 일하던 중 회사 측에서 “업무속도가 느리다. 일하는 속도가 느린 것인지, 업무 이해도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회사 측과 이야기하면서 업무 속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제시간에 끝내기 위해 1시간 30분 전에 출근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업무가 느리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한 지 약 4년이 되면서 힘든 일은 없지만, 일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취업을 준비하는 뇌성마비인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기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마다 지원서가 다르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은 비슷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변형하고 수정하면서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복지관의 직업지원팀이나 장애인고용공단 중 직업 관련 담당 선생님들과 가까이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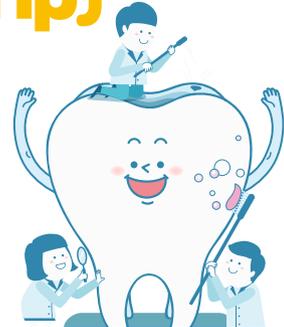
되, 그 분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분들은 조언과 작은 도움을 주는 분들이지 취업을 시켜주는 분들은 아닙니다. 본인이 구인광고를 찾고 이력서도 작성해서 선생님들께 첨삭을 받고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뇌성마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나 정보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나한테 취업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보를 찾아 “선생님, 이 회사에 지원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생님보다, 부모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해서 기본적인 PC 활용(엑셀, 워드, 인터넷검색, 화면 캡처 등)을 할 줄 알아야합니다.

문은 두드리면, 열린다고 합니다. 취업을 원한다면, 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 문도 열릴 것입니다.



Column

장애인 구강관리 꿀 팁(Tip)



1. 장애인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칫솔질 방법

🚫 보호자가 닦아 줄 때

보호자가 장애인의 등 뒤에 앉아서 장애인을 약간 기대게 한 후 마음을 안정시키고 한 손에 나무젓가락, 다른 한 손엔 칫솔을 들고 위·아랫니 사이에 나무젓가락을 넣어 입을 벌리게 한 후 최대한 빨리 닦습니다. 그 후 준비된 컵과 물로 헹구어 줍니다. 만약 물을 삼키는 경우 수건으로 빨리 닦아 냅니다.

🚫 입을 벌리지 않을 경우

거즈 등을 손가락에 감고 치약을 소량 묻혀 치아의 바깥쪽부터 살살 문질러 줍니다. 특히 음식물이 입안에 고여 있지 않도록 누운 상태에서 음식물을 닦아 내어 구강을 청결히 합니다.

2. 치약사용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절반에서 1/3 정도 짜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에 물을 묻혀 사용하면 거품 때문에 모두 닦았다고 착각하기 쉬어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사용합니다. 아동이 치약을 자주 삼킨다면, 불소 함량이 낮거나 무불소 치약을 사용합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

장애인의 경우 치과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고,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된 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의 문제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치과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진료 이용안내

치과진료

1, 4, 5주 수요일 9:30-11:30 / 2, 3주 목요일 9:30-11:30

스켈링 및 불소도포

매주 화요일 10:30-15:30 / 1, 4, 5주 수요일 9:30-14:30 / 2, 3주 목요일 9:30-14:30

🦷 진료내역 : 구강검사, 발치, 충치예방, 충치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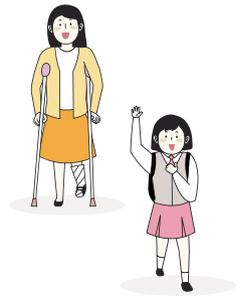
🦷 진료나 스케일링은 미리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치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먼저 치료 가능합니다.

Column



장애인차별금지법 들어보셨나요?



Q 장애인차별금지법(2008.04.11.)이 무엇인가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Q 차별금지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안내견, 장애 보조기기의 정당한 사용도 포함됩니다.

차이·편견·차별 구별해보아요!

우리는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야구단입니다. ”

1 오늘은 중요한 경기니까 장애가 있는 영민이는 후보군에 있지.

✍ ()

2 영민이는 공을 잘 치니까 타자로 나가고 성호는 던지기를 잘하니까 투수로 나가자.

✍ ()

3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야구를 해?

✍ ()



정답: 1. 차별 2. 차이 3. 편견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은 차별의 시작입니다.

Partner
ship

2019년 복지관과 동행했던 자원봉사자님



뇌성마비인을 위한 5,272시간 1,426번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2019.06.30. 기준)

개인

강주연	고대곤	고순주	고승이	고인옥	고재덕	고휘영	공경희	구명근	구은아	권오풍	금미애
김정숙	김경선	김기호	김기훈	김길만	김나운	김도연	김윤래	김명자	김명중	김명훈	김미경
김미숙	김미순	김미영	김미현	김민경	김민규	김범수	김복선	김사라	김서현	김선향	김성연
김성중	김소연	김소윤	김소은	김수정	김수지	김순이	김승근	김수지	김순이	김승근	김시현
김 신	김연숙	김연화	김영숙	김영순	김영자	김영학	김예슬	김옥규	김옥영	김완덕	김우성
김유나	김은성	김인교	김재민	김재원	김재준	김정아	김재윤	김종선	김준섭	김준성	김지원
김지은	김태원	김한솔	김형진	김휘두	김희정	나은별	나현옥	남순희	노점자	도신옥	류민호
마화영	맹윤주	문종우	문지나	민고은	민숙진	박문강	박미순	박수진	박영이	박영임	박예지
박윤환	박익근	박인서	박주혜	박준혁	박지훈	박진영	박찬호	박창우	박창화	박태현	박현준
방강현	배가은	백상렬	백주연	백희영	서강미	서동현	서소영	사재련	서정화	서혜주	석혜원
설평권	성승연	손종훈	손훈수	송재혁	신동규	신동선	신윤선	신지나	신지수	신홍임	신희성
심재석	안 슬	안예린	안재연	안준수	안해인	양복자	양승희	양재현	엄혜민	여경애	오기동
오까모토나오코	오승현	오승훈	옥기표	왕화빈	용석달	우정희	원유희	유명환	유승주	유은채	유은채
유주연	유준규	유지혜	유호중	윤승희	윤예지	윤재준	윤정순	윤호선	이근호	이금희	이기창
이나경	이난수	이다영	이미영	이부유	이서현	이선자	이선재	이수민	이수혁	이숙희	이순희
이애경	이양교	이은숙	이은재	이재필	이주호	이지윤	이진옥	이토유미꼬	이하경	이현진	이현진
이혜령	이혜원	이혜은	임민진	임새려	임연선	임재준	임지환	임창한	임채원	장국환	장명숙
장미경	장석원	장윤영	장윤정	장인근	장재혁	장정숙	전규안	전재완	정갑숙	정덕자	정미선
정민서	정부심	정세림	정영진	정영희	정재훈	정준화	정지운	정현순	장현영	정형애	조계남
조계진	조금옥	조대현	조동규	조문주	조선익	조성행	조승의	조예원	조윤진	조은영	조은혜
조황숙	조효림	조희수	지미숙	차희정	채명자	천수자	최경옥	최미경	최복자	최세영	최수진
최영주	최유리	최재영	최정현	최지원	최진경	최현경	최혜윤	한민영	허유진	허지아	홍영진
홍현민	황수민	황순임	홍현민	황수민	황순임	황승현	황정수	황주석			

단체

노원의용봉사대, 대진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초아', 삼육보건대 간호학과 동아리 '두빛나라', 사랑의열매 강북구 나눔봉사단, 디딤돌봉사단,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랑봉사회, 정신여자고등학교, 사단법인 세계평화여성연합 서울북부지부

자원봉사 안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행복사랑드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키워온 사랑과 재능을 뇌성마비인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보세요.

* 분야: 문화·스포츠·직업프로그램 보조, 학습지도, 보육, 가정결연, 식당, 재능기부 등

* 문의: 방문, 전화(02-932-4415), 홈페이지(www.srccp.or.kr), 지역권익옹호팀 자원봉사담당자

Partnership

2019년 복지관과 동행했던 후원자님



뇌성마비인을 위해 후원금 83,186,415원, 후원물품 2,089점의 사랑이 쌓였습니다.
(2019.6.30. 기준)

개인

강만희	강명수	강미나	강민정	강민찬	강유정	강인화	강제이	강철규	강혜란	고종민	공경희
공현식	권선화	권용운	권종울	권 준	권희성	길승미	김가영	김경숙	김경아	김경엽	김규석
김기환	김남경	김도경	김도형	김동환	김동희	김류경	김명숙	김명애	김명화	김문환	김미란
김미순	김미현	김민정	김바다	김범주	김병호	김병훈	김보경	김상엽	김상진	김상환	김상희
김선귀	김선식	김선영	김선정	김선화	김성일	김소라	김수원	김수일	김순영	김순자	김안다
김영미	김영신	김영아	김영진	김영현	김옥근	김용현	김우석	김운기	김유진	김은영	김인호
김정배	김정보	김종민	김종숙	김주완	김주용	김주태	김중집	김지원	김지유	김진경	김진희
김창기	김창순	김창욱	김철순	김태영	김태완	김태원	김태희	김한철	김해나	김해순	김현성
김현우	김현준	김현지	김형남	김형찬	김혜림	김호준	김홍식	김희진	나성주	나윤경	남영민
김성민	노상윤	노선영	노찬님	라권찬	라기도	라윤진	목진용	목진원	민경현	민년기	민원식
민정은	민지혜	민혁기	박계순	박광민	박규남	박기현	박남수	박도원	박문강	박미순	박미애
박민수	박병석	박상민	박상용	박상은	박선희	박소연	박수진	박수현	박승희	박애순	박영재
박옥자	박윤옥	박정원	박주영	박주하	박준우	박준현	박지은	박지훈	박춘우	박희재	방윤섭
방인선	배예찬	배은서	서강은	서다은	서승원	서예린	서정순	서현민	서현희	선경아	성민제
성원석	성준혁	손경수	손인영	송양분	송은숙	송재혁	신정희	신현철	심명희	심익보	심정보
안갑순	안다영	안소연	안소희	안신애	안지은	안태식	양승호	양정미	양정희	엄윌흠	엄명자
염재명	오경미	오명원	오영민	오영수	왕미영	우해중	우현정	유대권	유선미	유세리	유은영
유진	유태영	윤민환	윤선미	윤수현	윤장남	윤정열	윤희재	이연주	이경랑	이계명	이기선
이남철	이다은	이미희	이서희	이선아	이수연	이순향	이승재	이연수	이영식	이우혜	이원민
이원석	이은영	이인구	이재현	이영진	이정미	이정석	이주연	이주일	이중구	이지연	이지영
이지우	이지윤	이진용	이창호	이춘향	이춘희	이태희	이해우	이혁수	이혜경	이훈정	임남택
임미남	임성호	임수혁	임숙경	임우기	임원웅	임정규	임채린	임태원	임하울	임혜진	임희은
장광윤	장기훈	장논산	장미자	장미정	장민호	장서윤	장선섭	장수봉	장영섭	장영승	장현우
전민호	전병윤	전웅일	전해경	정경원	정 근	정금례	정다은	정덕자	정동인	정명순	정석구
정소영	정수인	정승민	정양훈	정연우	정영구	정예린	정예훈	정유경	정유지	정은성	정은희
정지혜	정해정	정행간	정현남	정혜선	정혜진	정희경	조범준	조유정	조인호	조재정	조정훈
주미숙	진미화	진은경	차성설	차정진	차하은	차하준	채만례	채희정	천은정	최경실	최금순
최나혜	최동현	최미향	최윤성	최재영	최정선	최지현	최희선	최진윤	최현근	최혜옥	추완식
탁성희	탁옥인	표서윤	표충의	하승보	한범석	한상근	한선희	현익환	현재민	홍선화	홍성우
홍아람	홍준호	홍찬호	홍현태	홍현호	황경숙	황계원	황인권	황인범	황정순	황진도	

단체

장선섭 가족일동, 건설공제조합, 동문약국, 삼형제 무한리필, 초록동호회, 하나마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교육복지재단,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광역푸드뱅크, 기억트든데이케어센터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후원자

권오숙, 김민호, 김순덕, 김영호, 박종탁, 송정희, 이국현, 이명자, 이명희, 이민자, 이용식, 이종거, 이창근, 이창성, 정소라, 주보경, 주한일, 최미경, 한기숙, 한승용, 한정애, 황미현

* 보내주신 후원금은 교육비, 의료비, 및 생계비 등 뇌성마비인들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나눔의 손길로 뇌성마비인들에게 재활과 자립·자활을 위한 밝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Partner ship

모금함 설치업체



구분	상호명	종류	주소	전화번호
1	신의주찐쌀순대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03가길 29	02-976-8749
2	알파문고	문구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1(노원빌딩)	02-935-8382
3	논골집 노원점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17-3	02-930-0080
4	한우리마트	슈퍼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101	02-932-6228
5	하나마트	슈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4가길 2	02-939-6688
6	하나마트(2호)	슈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30길 53	02-493-5989
7	상계동문약국	약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52(상계동, 형인빌딩 1층)	02-951-8572
8	센트럴S마트	슈퍼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21	02-939-1465
9	호밀호두(노원점)	제과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54(명석빌딩) 1층 101호	02-936-5152
10	건영옴니볼링센터	볼링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삼발로 258(건영백화점 지하2층)	02-3399-5351
11	통닭연구소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7가길 23	02-931-3339
12	디아떼	카페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59-47	02-952-8694
13	밀겨울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길 9	010-6225-5901
14	병천황토방순대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8길 17	02-935-6655
15	일북	음식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77길 12	02-937-4848
16	두레마을 우동집	음식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21-15	02-994-0010

후원안내

먼저 손 내밀어 줄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 **방 법** : 후원금(CMS,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모금함 설치, 기타), 후원물품
- **예금주**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 **계 좌** : 국민은행 841501-04-020275, 신한은행 100-024-899062, 농협은행 301-0001-4627-21, 우리은행 1006-780-201374, SC은행 231-20-379778
- **문 의** : 방문, 전화(02-932-4411~2), 홈페이지(www.srccp.or.kr) 기획운영지원팀 후원담당자
 ※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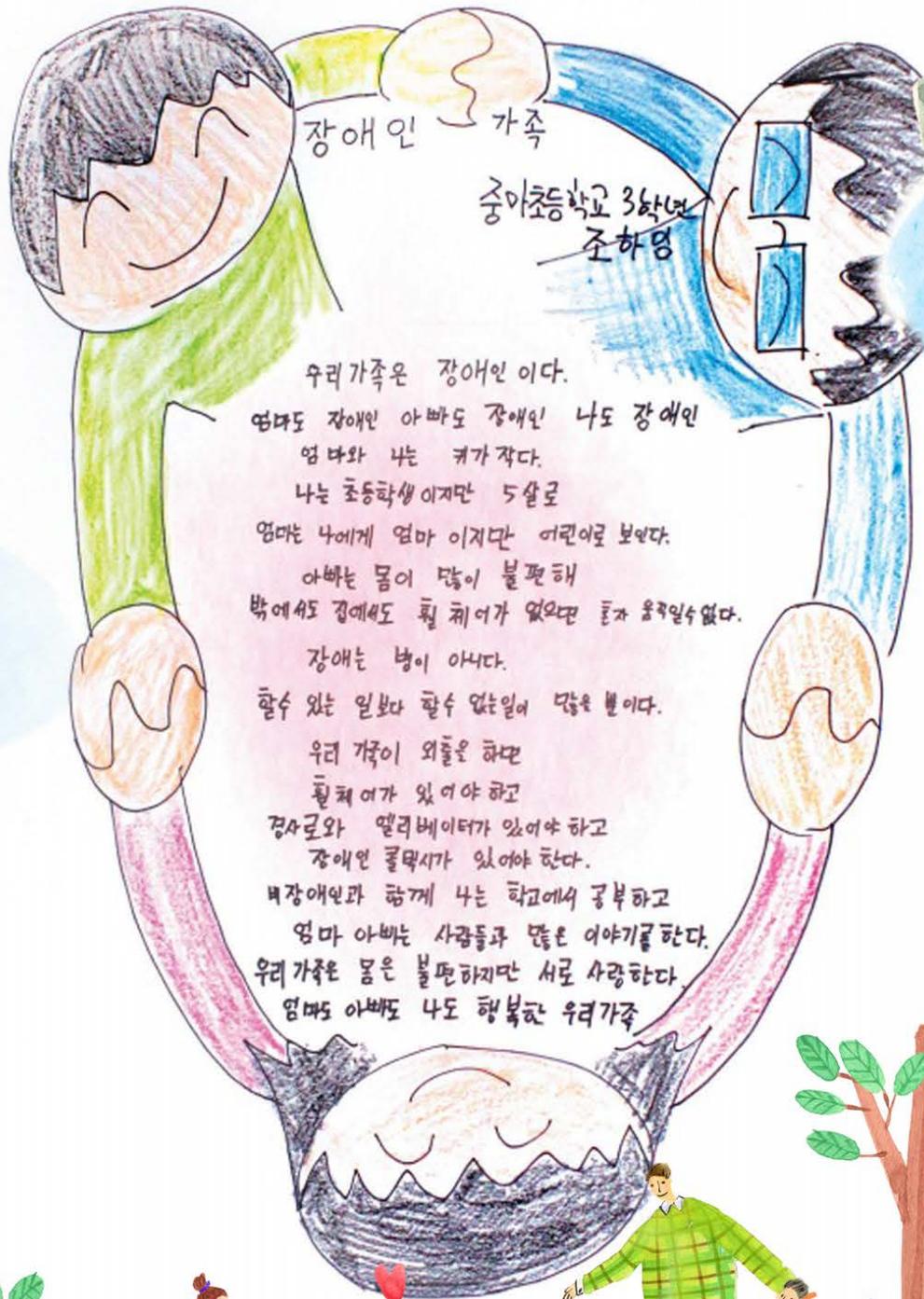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2019년 1월 1일 ~ 6월 30일

(단위: 원)

수입		지출		사용내역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년 이월금	64,456,760	이월금	101,596,249	
지정후원금 (외부공모사업 포함)	66,585,508	사업비	37,394,710	재가뇌성마비인 월동지원사업비, 성인 연극교실·미술교실·학습동아리, 아동·청소년 무용교실·운동놀이교실 프로그램 진행비, 외부활동 진행비, 교육비·치료비 지원 등
비지정후원금	16,600,907	1:1결연후원 운영비	8,190,000 462,216	치료비, 의약품비, 식비 및 생계비, 교육비 등 시설 정비 및 유지비 등
합계	147,643,175		147,643,175	



장애인 가족

중미초등학교 3학년
조하임

우리가족은 장애인이다.
 엄마도 장애인 아빠도 장애인 나도 장애인
 엄마와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초등학교이지만 5살로
 엄마는 나에게 엄마이지만 어린아로 보인다.
 아빠는 몸이 많이 불편해
 밖에서도 집에서도 휠 চে어가 없으면 혼자 움직일수 없다.
 장애는 병이 아니다.
 할수 있는 일보다 할수 없는일이 많은 뿐이다.
 우리 가족이 외로운 하면
 휠 চে어가 있어야 하고
 경사길과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고
 장애인 콜택시가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과 함께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엄마 아빠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글 한다.
 우리가족은 몸은 불편하지만 서로 사랑한다.
 엄마도 아빠도 나도 행복한 우리가족

위 작품은 2018 오뚜기들의 글발표회 최우수상(초등부) 수상 작품으로
 조경수(뇌병변 1급)의 자녀 조하임 학생의 시입니다.

Partner
ship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셜벤처 블루레오



지난 8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뇌성마비인 권익증진을 위한 블루레오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의 ‘장애인 보조기기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블루레오는 스스로 양치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전동흡입칫솔 G100을 개발한 소셜벤처 기업인데요. 블루레오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과거부터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블루레오 이승민 대표이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학 중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 다년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중증 장애인의 불편한 양치 환경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양치물을 뱉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구강 관리 보조기기 전동흡입칫솔 G100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블루레오는 37건의 국내 특허와, 미국, 일본, 유럽 포함 28건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최근 4건의

미국 특허를 등록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블루레오는 ‘2019 롯데복지재단 장애 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지원사업’, ‘블루레오-일과 복지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 제품 공급 약정체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소셜 벤처로서 장애인의 불편한 양치 행태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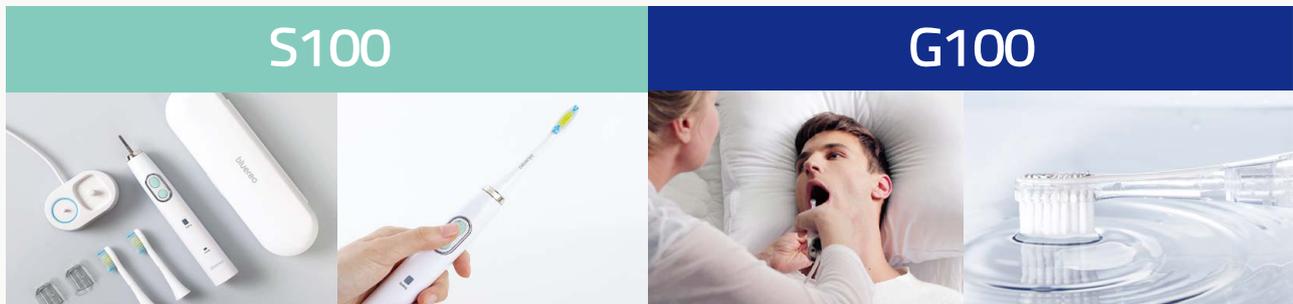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기술개발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성 평가, 기술개발 및 지원 등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구강관리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국내외 재활, 실버산업을 이끌어 갈 블루레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칫솔만 고민해온 **소셜벤처 blureo**

하루 9분의 양치, 완벽한 90년을 만드는 순간



네이버 검색창에 **블루레오 G100** **블루레오 S100** 를 검색하세요



S100

내 치아에 딱 맞는 진동을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 전동 칫솔 S100

G100

스스로 양치물을 뱉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전동 흡입 칫솔 G100



1~10단계
진동 조절



듀풍사
미세 칫솔모



30초 인터벌
타이머



여행용
케이스 제공



양치물 흡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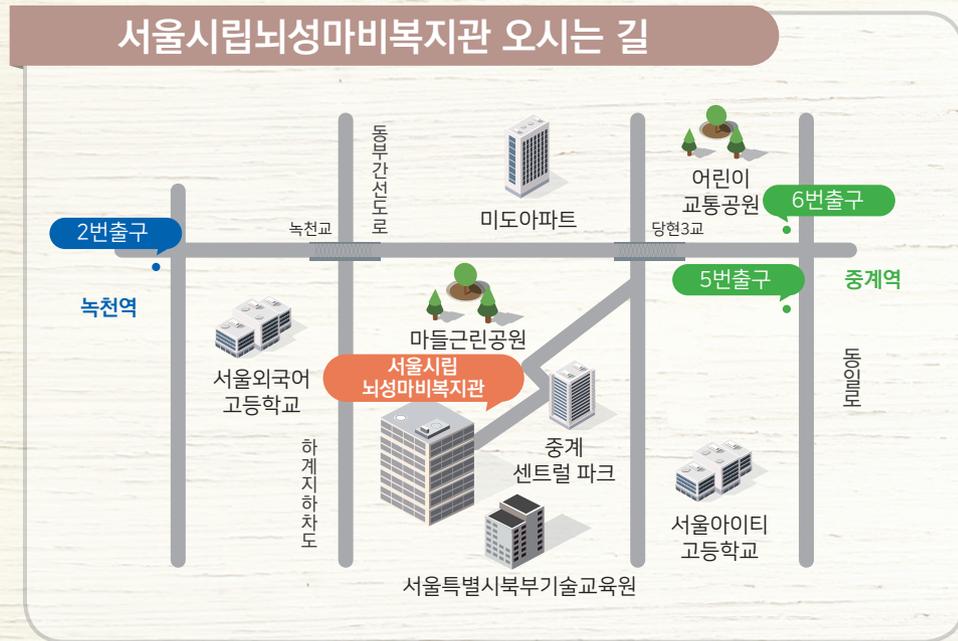


음파 진동



LED 조명

행복사랑드림, 뇌성마비인의 재활과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지하철 이용시

- ♥ 7호선 중계역 5번 출구 (도보 12분)
- ♥ 1호선 녹천역 2번 출구 (도보 22분)

버스 이용시

- ♥ **지선버스** 1144, 1120, 1137
- ♥ **간선버스** 146, 105, 102
- ♥ **마을버스** 노원 09번(중계역 6번 출구 앞)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Seoul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Cerebral Palsied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상계6·7동 771)

☎ 02-932-4411~2 📠 02-932-4413 www.srccp.or.kr